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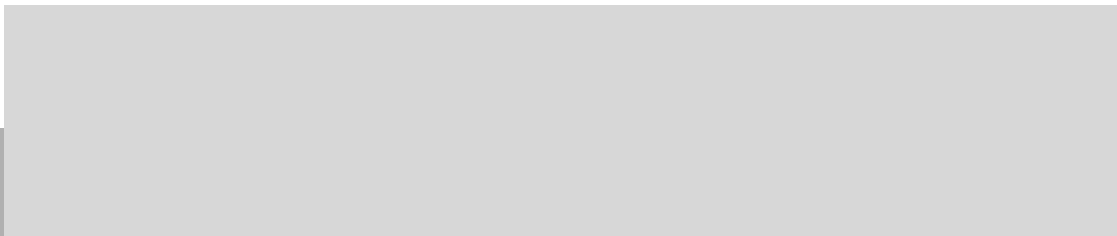
2019.02.21.

CNI세미나 2019-009

2019년 축산환경공존 연구회
제1차 축산정책포럼 자료집



홍성 2030 비전 축산분야 정책제안 및
2019년 축산정책포럼 운영방향



2019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1차 축산정책포럼 개최 계획(안) -

- 연구회 :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회의명 : 제1차 축산정책포럼
- 회의주제 : 홍성 2030 비전 축산분야 정책제안 및 2019년 축산정책포럼 운영방향
- 회의목적 : 홍성군에 제안할 축산분야 정책제안 토론 및 2019년 운영 방향 브레인스토밍
- 회의일시 : 2019.02.21. 목, 19:30~21:30
- 회의장소 : 문당환경농업관(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 참석인원 : 약 20여명 내외
- 주관·주최 : 충남연구원(축산환경공존연구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축산정책포럼)
- 준비총괄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강마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9:30	19:40	여는 말(prologue)	충남연구원&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19:40	19:50	2018년 제9차 축산정책포럼 논의 정리결과 발표	충남연구원&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19:50	20:10	주제발표1 : 홍성 2030 비전 축산분야 정책제안 (홍성군 축산환경 공존 프로젝트(안))	충남연구원 강마야
20:10	21: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체
21:00	21:10	주제발표2 : 2019년 축산정책포럼 운영방향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나영
21:10	21:30	브레인스토밍	참석자 전체
21:30	21:30	나가는 말(epilogue)	충남연구원&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주제발표1.

홍성 2030 비전 축산분야 정책제안 :
홍성군 축산환경 공존 프로젝트(안)

강마야 연구위원 | 충남연구원

[(홍성 2030 비전) 홍성군 축산·환경 공존 프로젝트]1)

1.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홍성군 지역총생산(GRDP) 중 축산업을 비롯한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 3위

- 2016년 기준 홍성군지역총생산(총부가가치 합계, GRDP)는 2.7조 원, 이 중 축산업을 비롯한 농림어업경제활동은 3,645억 원으로 13.1% 차지(1위는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위는 제조업),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높은 편

■ 홍성군 돼지 및 한우 가축사육두수는 충청남도 및 전국 1위 점유율

- 2018년 기준 충청남도 돼지 사육두수는 240.5만 두, 홍성군 돼지 사육두수는 57.1만 두로서 전국 1위 및 시군별 점유율 1위(충남 내 23.8% 차지)
- 2018년 기준 충청남도 한우 사육두수는 37.5만 두, 홍성군 한우 사육두수는 5.3만 두로서 전국 1위 및 시군별 점유율 1위(충남 내 14.3% 차지)

■ 홍성군 돼지, 한육우, 닭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은 충남 내 1/5 이상

- 2016년 기준 충청남도 1일 가축분뇨량은 20,262.7톤, 홍성군 1일 가축분뇨량은 4,186.2톤으로서 시군별 점유율 1위(충남 내 20.6% 차지)
- 가축분뇨량 자체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 및 활용하는 기반 인프라 자체가 매우 부족해서 제도권에서 처리하는 비중은 약 14.3%으로 추정

■ 홍성군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한 환경 및 악취 문제는 삶의 질과 갈등발생 영향

- 축사밀집지역(은하면, 광천읍, 홍동면, 갈산면) 및 내포신도시(홍북읍) 중심으로 축산업자와 마을주민 간 갈등 발생, 축종별 축산업자 간 갈등 발생
 -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환경오염, 가축분뇨 등 축산 악취 발생은 지역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 간 공공갈등 발생에 영향
-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 시 지역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 확산 조짐

■ 홍성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축산업 관련 환경규제와 정책 동향

- 가축분뇨법 강화로 우분 퇴비 부숙도 기준 마련과 강화 예정(2020년)
- 양분관리제 시행으로 지역 내 적절한 양분처리 용량을 감안한 가축사육두수 제한 예정(2021년)
-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제도시행 임시유예가 되었지만 만료기간 도래 예정(2019년)

1) 주 : 이 자료는 현재 홍성군청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인 연구(홍성비전 2030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충남연구원 수행 중(조영재 박사)) 중간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것임(작성자 동일).

- 축산업과 관련하여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 법률과 정책동향은 홍성군 축산업 직접적 영향을 줄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필요

2) 필요성(문제의식)

■ (총괄) 축산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역경제 및 혁신 난항, 축산업도 지속 성장 불투명

- 내포신도시 확장, 시 승격, 신규청사 이전, 천수만권역 지역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기업유치 등 중요한 이슈의 길목마다 축산 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 높음.
-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응원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축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임.

■ (내부요인)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한 지역 내 환경 문제와 갈등 문제 해결 시급

- 홍성군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큰 편인 반면 부작용으로서 각종 토양 및 수질 환경오염 심각(BOD기준, 금리천은 축산폐수 및 분뇨로 인한 오염심각지역)
- 가축밀집사육, 노후화된 축사시설, 가축분뇨 처리미흡 등으로 인한 축산 악취발생 문제는 지역주민 갈등, 지역사회 전체 갈등으로 확대 양상, 사회적자본 구축에 걸림돌

■ (외부요인) 축산문제 해결은 홍성군 성장을 위해서 먼저 해결할 이슈로서 적절

-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은 내포문화권 지역으로서 상징성과 대표 이미지로 새롭게 조명
- 내포문화의 역사자원과 지역 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축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불투명
- 가장 먼저 해결하고 가야할 이슈로서 축산문제 적절, 특히 축산과 환경의 공존이라는 해결 프로젝트 선정 중요

■ (핵심과제) 첫째, 소통 확대와 신뢰 극복하는 것, 둘째,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

-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의 근본원인은 그동안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 행정 모두가 축산에 대한 오해와 뿌리깊은 불신, 자원 간 순환이 단절된 구조에 기인
-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째 핵심과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첫 단추이자 문제해결 실마리
-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둘째 핵심과제는 농업-축산-환경-에너지-지역경제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분야, 영역을 아우르면서 상호 순환시키는 구조 만들기

2.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 “지속가능한 홍성군 축산업을 위한 축산과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

- 홍성군에서 중요한 산업인 축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가칭) 홍성군 축산·환경 공존 프로젝트’ 추진
- 지속가능성의 4대 추진전략 축을 ‘축산업의 경제/사회/환경/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 소통과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 홍성군 축산과 환경을 공존하는 상생 정책 수립
 - 경제 측면 : 생계형 축산업자 재산권 및 경제활동 보호, 광역단위 공공조달 추진
 - 사회 측면 : 인식전환 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홍성군 축산물 먹거리 자주인증
 - 환경 측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지역자립 에너지 체계, 유기성 자원순환 구조
 - 제도기반 측면 : 축산관련 보조사업 재편,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포럼 운영, 실태조사

2) 추진전략

■ (경제 측면) 생계형 축산농가 재산권 및 경제활동 보호, 광역단위 공공조달 추진

- 중소농 이하의 생계형 축산업자 재산권 및 경제활동 침해하지 않는 제도장치 마련
- 충청남도 광역단위로 홍성군 축산물의 공공조달 추진 확대(판로, 가격)

■ (사회 측면) 인식전환 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홍성군 축산물 먹거리 자주인증

- 지역 내 축산업을 둘러싼 공공갈등 문제 해결 위한 상호 인식전환 교육 프로그램
- 건강한 방식으로 사육하는 축산물 생산과 소비를 위한 먹거리 자주인증제 도입

■ (환경 측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지역자립 에너지 체계, 유기성 자원순환 구조

- 단기 : 가축분뇨 악취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지역자립 바이오에너지 체계 구축
- 중장기 : 가축분뇨/폐사축/농림수산물 부산물/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자원순환 구조 구축(푸드플랜 완결판, 경종과 축산 간 자원순환을 통한 진정한 홍성군 유기농업 실현)

■ (제도기반 측면) 축산관련 보조사업 재편, 소통/신뢰 회복 위한 포럼과 리빙랩

- 일회성, 소모성,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축산관련 보조사업 재편(정책/예산 구조조정)
- 지역 내 생산자-소비자-행정 간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한 정기포럼 운영, 실태조사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리빙랩(living lab, 살아있는 마을 실험실) 운영방식 도입

3. 세부사업 내용(추후 카테고리/구분/내용구체화 예정, 현재는 사업명 나열)

(1) 홍성군 축산물 먹거리 자주인증제 도입

■ 목 적

- 홍성군 축산물이 건강한 먹거리, 신뢰받는 먹거리로서 전환하기 위한 자주인증 도입
- 현행 국가인증제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형 자주인증제 제도 도입하여 신뢰 확보

■ 사업내용

- 건강한 축산물 먹거리 자주인증을 위한 기준과 원칙 마련
- 자주인증제 관리정책, 관리주체, 관리방식, 모니터링 체계, 관리 프로그램 도입

(2) 충청남도 광역단위 홍성군 축산물의 공공조달 확대 추진

■ 목 적

- 자주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홍성군 축산물 먹거리를 공공조달 납품/공급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급식 시 홍성군 축산물 공공조달 계약, 납품, 공급 기준 제시
- 공공조달로 납품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에 대해서 자주인증제 기준 준수 모니터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산 인식전환 교육프로그램

■ 목 적

- 축산업에 대한 상호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전체가 인식전환 필요
- 참여형 교육, 공공갈등 해소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사업내용

- 평생학습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등 축산환경 관련 기초교육/심화교육 프로그램 개설
- 축산환경 소비자 서포터즈 활동, 축산환경 생산자 인식개선 및 실천 활동 등 전개
- 축산으로 인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전체 토론과 공론의 장 개설과 연계

(4) 홍성축산정책포럼 정기 운영 및 전수 실태조사

■ 목 적

- 축산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체가 정기적인 만남과 학습을 위한 포럼 운영
- 지역주민 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행정차원의 노력 일환으로서 전수 실태조사

■ 사업내용

- 홍성축산정책포럼 구성, 정례모임 개최, 상호학습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 홍성군 축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농가 및 관련업체 전수조사, 백서 발간
- 포럼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홍성 축산 비전 : 반성, 평가, 비전 도출 등

(5) 축산관련 보조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

■ 목 적

- 일회성, 소모성,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축산관련 국도비/시군비 보조사업 재편

■ 사업내용

- 농수산과+축산과+환경과+경제과+농업기술센터+기획감사담당관 등 축산문제해결통합TF구성(군수 직속 컨트롤타워)
- 축산관련 보조사업 총괄평가 검토, 일몰/축소/확대/유지 등 사업군으로 구조조정

(6) 생계형 축산농가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 목 적

- 중소규모 이하 생계형 축산농가 재산권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장치 마련

■ 사업내용

- 자주인증제 및 공공조달 공급 우선권 부여(공급 및 계약 기준에 포함)
- 가축분뇨법 강화 및 양분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 포함(예.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

(7) 경종과 축산의 유기성 자원간 순환 구조 구축

■ 목 적

- 경종과 축산의 단절된 구조를 일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수거 및 퇴액비 자원화시설 확대 : 현행 9개소, 최대 20개소 시설 필요
-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퇴액비를 친환경농업(유기농업 포함)농자재 포함, 홍성군 지역 브랜드 사용과 퇴액비 지원사업 간 연계 의무화
- 품목별 경작지에 소요되는 적정 시비량 산출, 시비처방 매뉴얼 구축(농업기술센터)
- 퇴액비 제조 및 살포의 제도권 진입과 관리를 위한 주체별/부서별/기관별 역할 배분

(8)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화 및 지역자립에너지 체계 구축

■ 목 적

- 가축분뇨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지역자립 에너지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바이오가스플랜트) 확대 : 현행 1개, 최대 10개 시설 필요
- 가축분뇨 에너지를 통한 지역 내 100% 전기 및 가스 공급사업 실시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환원사업으로 수익발생은 지역주민에게 소득사업 환원

(9) 홍성축산환경공존 시범사업 리빙랩 운영방식 도입과 추진

■ 목 적

- 축산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되는 시범사업과 기술을 실제 마을에 적용하여 모니터링
- 지역주민, 연구자, 기술전문가, 공무원, 컨설팅, 포럼구성원 등이 협심하여 사업체크

■ 사업내용

- 홍성축산정책포럼, 축산환경 관련 교육과정, 공론화 과정 등에서 시범사업 도출
- 홍성군 전수실태조사 및 백서발간, 홍성축산비전 등에서 시범사업 도출
- 도출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 선정하고 사업진행
- 리빙랩 운영하는 지역주민 등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관찰, 모니터링, 결과체크 실시

<세부사업 요약정리>

번호	세부사업명	단계별 이행시기 (단기-중기-장기)	중심주체 (행정,민간,공동 등)
1	홍성군 축산물 먹거리 자주인증제 도입		
2	충청남도 광역단위 홍성군 축산물의 공공조달 확대 추진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산 인식전환 교육프로그램		
4	홍성축산정책포럼 정기 운영 및 전수 실태조사		
5	축산관련 보조사업 재편 및 구조조정		
6	생계형 축산농가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보호를 위한 제도장치		
7	경종과 축산의 유기성 자원간 순환 구조 구축		
8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화 및 지역자립에너지 체계 구축		
9	홍성축산환경공존 시범사업 리빙랩 운영방식 도입과 추진		
10	(추가의견)		
11	(추가의견)		
12	(추가의견)		
13	(추가의견)		
14	(추가의견)		
15	(추가의견)		

주제발표2.

2019년 축산정책포럼 운영방향

충남연구원&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2019년 연구회 활동 계획서(안)

■ 연구회명 : 축산·환경공존 연구회

■ 연구회 대표(회장) : 강마야 책임연구원(경제산업연구실)

- 공동협력 운영주체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정책포럼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 내에서도 유일하게 축산문제를 다루는 지역 조직

■ 연구회 구성원 : 총 30명 내외

- (충남연구원) 전공자 외 관심있는 연구자 3-4명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정책포럼) 활동가 5-6명

- (지역주체) 주민, 농업인, 축산인,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등 이해관계자 20여명

■ 연구회 활동 목적

- 지역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축산 및 환경분야 정책 대안 논의, 실행전략 도출

- 지역주민 중심의 운영, 주민 스스로 연구자가 되어서 실천가능한 대안 마련, 연대체계 형성

- 충청남도과 주요 시군 등 축산 및 환경분야 공식제안하여 정책 및 제도 실현가능성 도모

■ 연구회 주요 목표(2019년)

- 홍성군의 축산과 환경 분야 장기적인 미래상(축산·환경 공존 프로젝트) 구상

- 미래상 실현을 위한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산적인 정책방안 도출

■ 연구회 활동 특징

- NGO(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정책포럼)와 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협력 운영

■ 전년도 운영과의 차이점

- 참여범위 확대 : 농업인, 축산인, 지역주민, 공무원, 의원(도,시군) 등 구성원 참여 확대

- 진행방식 변화 : 우수사례 학습과 공유(외부 강사초청 혹은 현장견학), 참여자가 주제발표

- 논의결과 확산 : 논의된 전략 중 현장적용 기술 및 실험 실시, 리빙랩(living lab)방식 시도

- 정책 현실화 : 수탁과제인 「홍성비전 2030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정책제안 반영

■ 공동운영에 따른 역할분담

- 충남연구원 : 논의주제 설정, 전문가 발제 및 추천, 행정처리 업무, 네트워크 연결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참석자 섭외, 행사준비(사진촬영 및 녹취록 정리), 언론보도 등

■ 연구회 논의 주제(2019년, 초안) (충남연구원+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공동안)

회차	논의 주제	발제자	비고사항
1회차	2019년 운영방향 브레인스토밍	충남연구원 환경운동연합	
1회차	홍성군 축산.환경 공존 프로젝트 제안(안) /by 홍성비전2030 연구용역 = 홍성군 축산과 환경 분야 장기적인 미래상 구상	충남연구원	
2회차	경종과 축산의 자원순환 농법 사례 : 푸드플랜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실천농업인	
3회차	충북 괴산 한축회(한살림 공동체) 등 선진사례 현장견학 프로그램	현장견학	
4회차	분뇨처리 주체의 변화 : 개인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시민단체	
5회차	축산농가 인식의 전환 : 패널티에서 인센티브로..(환경 곧 경제적 이익)	축산인	
6회차	축산분야 빅데이터 : 농장단위 데이터에서 시작, 네트워크, 공개	실천농장	
7회차	축산농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연구단체 조성방안과 역할	축산인 단체	
8회차	기존/향후 정책과 제도 평가 : 농식품부, 환경부, 충청남도, 홍성군 등 * 내포신도시 악취저감대책, 친환경축산근본대책, 친환경농업정책 등 * 가축분뇨법 제개정, 양분관리제 시행 등	전문가	
9회차	(추가 의견) 에너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타단체와 협업	
10회차	(추가 의견) 지역 내 청년들과 함께하는 협업 프로그램	타단체와 협업	
	(추가 의견)		
	(추가 의견)		
	(추가 의견)		

* 상기 주제는 최종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현재 (안)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함.

■ 소요비용 : 총 5,000,000원 예상

- 연구회 행사 : 현장포럼 및 현장견학 등 약 9회 개최 예정
 - 회의비(발제 수당, 기타 작업 수당) : 17명 × 100,000원 = 1,700,000원
 - 인쇄비 : 9회 × 130,000원 = 1,170,000원
 - 다과비 : 9회 × 70,000원 = 630,000원
 - 현장견학 : 2회 × 750,000원 = 1,500,000원

원천마을 발전계획 사례 및 2018년 축산정책포럼 운영 총괄평가

요약/정리 : 충남연구원
녹취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2018년 제9차 축산정책포럼 기록①>



■ 요약 및 정리

o 1부 : 원천마을 발전계획 사례 핵심요약(금곡리 내 자연부락인 원천마을)

- 마을비전 : 마을과 축산이 상생하는 친환경생태마을 만들기, 마을주민 100% 에너지 자가생산-자가소비 구조 만들기 되기
- 목표 : 온실가스 저감과 자립에너지 실현
- 사업계기 : “마을에 반딧불이를 살려내자”라는 결의로 시작
- 현황 : 마을 내 양돈 3농가/한우 3농가/양계 1농가, 바이오가스플랜트 100억 원 사업규모(70억 원 국비 및 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1일 가축분뇨 110톤 처리(성우농장은 이중 25톤 발생), 마을 내 토종돼지재래종 방목하는 목초지 조성(200평 당 6두 사육, 현대백화점 100g당 8,000원 납품, 연간 약 160-180만 원 소득발생해서 주민소득원 귀속)
- 수익 : REC소득, 온실가스(탄소)배출권 소득(실제 바이오가스만으로는 소득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 사업, 마을사업을 통해서 수익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특징 : 바이오가스플랜트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없음(그래서 수익안 좋음), 전국 유일의 멀티 신재생에너지마을(소스 :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풍력 등),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상생발전 모델창출 가능성 발견
- 계획 : 발전 뒤 폐열을 마을 내 시설원예작물에 공급, 마을내 돼지국밥 식당(마을내 농산물 사용해서 로컬푸드 및 관광산업 완성 등), 토종재래종 돼지 판매 예정(두당 90만 원), 액비연계형 순환농업 실현, 시설원예작물 및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선택 다양화(액비사용, 특히 경작지가 부족해서 비료성분을 많이 흡수하는 작물식재),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 제시
- 제도개선 :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비율 향상 필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예. 계별축사의 슬러리돈사 높이 조정도 고려, 제도권에서는 처리기반 구축 동시 진행), 부처별 공사비 계산상이한 부분 보정 필요(예. 환경부는 톤당 1.5억 원, 농식품부는 9,000만 원, 현실은 1.7억 원~1.8억 원 소요)
- 마을주민 설득방안 : 마을주민 참여와 설득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 이익 담보(사업 지속가능성에서 중요 전제조건), 그 다음 마을의 생태 및 환경보전 이익, 공익 및 사회 이익 강조
- 유리한 점 : 좋은 주민, 젊은 사람, 운영주체는 50-60대 청년회가 마을발전위원회 주류, 좋은 농장주 등 여러 가지 조건 부합
- 시사점 : 마을발전상을 함께 만들고 난 뒤 사업계획 수립, 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고 시간 가지면서

학습 및 논의과정(즉,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 원활한 소통구조, 농장주에 대한 신뢰,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마을주민과 소통

- 악취문제 해결 : 가축분뇨처리와 에너지화 관계는 충분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즉, 반드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필요하지만 반드시 에너지로 이어질 필요 없음), 유의할 점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속한 가축분뇨처리가 답은 아님(더 깊어진 슬러리 돈사 구조 하에서 가축분뇨를 자주 수거하면 오히려 돼지사육과 건강에 안좋은 영향)

o 2부 : 2018년 축산정책포럼 운영 총괄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혹은 데이터) 축적과 과학적 분석결과가 되어야 과학적인 정책 도출 가능
- 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혹은 협회와 연구기관 간 협업 필요(지역 내 축종별 협회 중심으로 농장운영 관리 데이터를 취합, 보유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실시간 공유 가능)
- 그간 축산농장도 폐쇄적 운영을 하다보니깐 자료 투명한 공개가 안 되었기에 시정 필요
- 최근 한우협회에서도 중앙단위로 거출하던 자조금을 일정비율 지역단위(도별, 시군별)로 거출할 수 있게 하자는 움직임, 지역 내 자조금을 통해서 지역사회환원사업 등 계획 구상 중(한우의 경우, 두당 20,000원 중앙으로 거출, 이 중 5,000원~10,000원 지역자조금으로 귀속하는 방안/돼지의 경우, 두당 1,100원 중앙으로 거출, 연간 180억 원~190억 원 농가거출, 농식품부가 50% 매칭해서 총 250억 원 자조금 규모 형성)
- 서로의 존재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게 된 계기, 축산환경공존/공생을 위한 여정은 계속 필요
-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 갈등은 오히려 좋은 약
- 무조건 패널티만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농가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발상의 전환
- 소농중심으로 환경문제 대응해서 개선해야 정부 비용(납세자의 부담) 최소화도 실현 가능
- 법만 강화하고 제도 및 시설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상황인 현실에 같이 공감해줘서 고마움
- 현재 흐름은 개별 축사의 책임도 막중하나 공공 제도권 진입과 공적처리를 통한 상생 중요
- 전국 환경운동연합 중 축산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단체(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 막중, 중앙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먼저 움직여서 사례를 만들 필요
-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축산문제를 가지고 진정성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
- 행정 테두리 내에서만 고민하지 말기, 시민이 생각하는 자리여서 뜻깊고 지속되길 희망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현상에서 출발한 문제를 꾸준히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함에 의미
- 가축악취 문제해결로 탄생한 논의자리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자립, 지역에너지 자립 등으로 이어지는 좋은 학습과 공부 자리로 연결된 특별한 추억
- 추상적일 수 있는 방안들을 현실화하도록 논의하였던 뜻깊은 시간
- 내년에는 중장기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같이 그려보고 발전적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볼 수 있기를 희망